

컴퓨터를 이용한 한글음성문자(KPA)의 활용

Usage of the Korean Phonetic Alphabet on PC Wordprocessing

이 현복(서울대) · 정 일진(서울대) · 조 운일(서울대)

H. B. Lee(Seoul Nat. Univ.) · I. J. Jung(Seoul Nat. Univ.) · W. I. Joh(Seoul Nat. Univ.)

Abstract

The Korean Phonetic Alphabet(KPA) as devised by H. B. Lee on the basis of Han-geul, the Korean Alphabet, was incorporated into the Hangul Word Processor(HWP) 1.* to be used on personal computers. With the upgrading of the HWP software from 1.* to more sophisticated versions of 2.*, 3.*, etc., it became necessary to convert the HWP 1.* KPA into upgraded version. This paper traces the history of the computerized KPA software from the initial version of HWP 1.* to the latest one.

1. 머리말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및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문서작성도 이제는 대부분이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문서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여러종이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이 단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의 문서편집기들은 이미 내장해 놓은 글자 외에 필요에 따라 특수한 문자들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고 있는데, 음성전사를 위한 음성문자는 바로 이런 특수문자에 해당한다. [한글]에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는 들어 있지만, KPA(Korean Phonetic Alphabet)는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많들어서 써야 한다. 아래에 KPA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한글]에서 이를 쓰기 위해 애쓴 노력의 흔적을 추적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더하려 한다.

2. KPA의 고안

KPA는 서울대 언어학과의 이현복 교수가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 중이던 1962년에 고안을 시작하여, 1971년 한글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언어학자 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래 여러차례 수정해 왔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언어박람회에 출품전시되었고, 또한 영국, 스웨덴, 일본, 폴란드 등지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 최종판은 1992년에 대한음성학회의 「말소리」에 발표되었다. 이 한글음성문자는 언어학과 학부 및 대학원의 음성학 강의에서 음성전사, 청각훈련 등을 위해 국제음성문자(IPA)와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어 발음검사」와 「어린이 발음의 진단과 치료」라는 단행본에서 음성전사에 사용된 바 있다.

3. 한글 1.*에서의 KPA 사용

[한글] 1.*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1990년에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원생 정일진에 의해 KPA 한 자 한 자가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다른 글자들이 사용되고 있던 사용자정의 자판을 KPA의 자판(user?.?ft)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사용 빈도수가 낮은 전각특수자형 파일인 special1.?ft의 한글자모 자판에 KPA를, 반각특수자형 파일인 special2.?ft의 한글풀어쓰기 자판에 구별부호를 배치하였다. 전각(special1), 반각(special2) 각각 화면용 글자체(.sft), 도트 인쇄용 글자체(.pft), 잉크젯 및 레이저 인쇄용 글자체(.lft)를 자형편집기(Font Editor)로 일일이 그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물로 1991년에 「한국어 발음검사」가 출판되었다.

4. 한글 2.5 이상에서의 KPA 사용

컴퓨터 하드웨어의 개발에 발맞추어 [한글과 컴퓨터]사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의 개발·보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글]의 버전을 2.*로 올렸다. 특히 2.5에서부터는 향후 PC의 운영체계가 DOS에서 WINDOWS로 바뀌어갈 것에 대비하여 이 두 운영체제에서 공히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DOS와 WINDOWS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은 HNC라는 디렉토리 하에 두어, [한글 2.5]만을 위한 프로그램 디렉토리 HWP25와는 구분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 DOS용 3.0이나 WINDOWS용 3.0b, 한글96 등의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디렉토리에 배치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사용자정의 글자들을 쓰는 방식도 바뀌었지만, 번거로운 변환절차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SICOPS '96을 앞두고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원생 조운일에 의해 그 변환이 이루어졌다. 1.*를 위해 만들었던 세 종류의 special 폰트 중 가장 크기가 큰 *.lft를 *.lfd로 변환한 후, 각각을 user?.lfd로 이름을 바꾸고, 그 각각의 문자수를 1024개로 맞춘 후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user.hft를 만든 것이다.

이 파일을 HNC의 하위 디렉토리인 FONT에 넣고, 한글을 다시 실행하면(도스용인 경우 hwp/z), 도스용인 [한글 2.5]나 [한글 3.0], 윈도우즈용인 [한글 3.0b], 더 나아가 [한글 프로96]에서도 문자표(Ctrl+F10)의 사용자정의 영역(3800~4fff)에서 KPA를 찾아서 쓸 수 있게 된다.

또 이 코드를 활용하여 kpa.key라는 새로운 자판을 만들어서, HNC 환경 안에 있는 자판지정에서 사용자 자판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전망

지금까지 KPA는 주로 서울대 언어학과 내에서 고안, 제작, 변환시켜 사용, 배포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프로그램에 내장시킬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미려한 윤곽선 글꼴로 훨씬 더 아름다운 KPA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 현복(1971). 한글음성문자 시안. 한글학회.
2. 이 현복(1981).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3. 이 현복(1992). 한글음성문자-이론과 실제-. 말소리. 대한음성학회.
4. 이 현복·김 선희(1991). 한국어 발음검사. 국제출판사.
5. 이 현복·김 선희·김 영태(1995). 어린이 발음의 진단과 치료-정상아와 장애아의 음성·음운론-. 교육과학사.
6. 한글과 컴퓨터. 한글 2.5 사용자 설명서.